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고린도후서 8~9장. 성도들은 복음 원리에 따라 가난한 이들에게 기꺼이 내준다. (20~25분)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읽는다.**

- 궁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왜 신앙이 필요한가?
-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궁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사람이 겪는 이 필멸의 세상에서의 시험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시험 가운데는 돈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 일반적으로 부에 대한 추구,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커다란 부로부터 오는 안락함에 대한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모사이사서 3:19) 될 때, 그는 더 높은 율법에 따르게 된다. 돈이 더 이상 그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선과 의를 행하기 위한 그의 종일 뿐이다. 그는 기꺼이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이가 되는 것이다” (신약교리 주해서, 2:435)

학생들에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구절은 베푸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베풀기를 원하시는가?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이들을 도와줄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8장 14~15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바울은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달성하기를 원하였는가?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의 다음 말씀을 나눈다.

“주님은 ... 지구가 사람의 자의대로 소유되거나 관리되어서는 안될 성질의 것이며, 주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주식과 채권과 땅과 기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글렌 엘 런드, 순수한 종교 [1995년], 291쪽; 성도의 빛, 1979년 10월호, 148쪽)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 속한 것이기에(교리와 성약 104:12~18참조),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주님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야 한다. 기꺼운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찾아보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읽는다. (누가복음 6:38 참조) 십일조를 내는 것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금식헌금을 내도록 한다.

고린도후서 11~13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점과 시련을 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견디어 내도록 도움을 주실 것이다. (20~25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시나무 또는 영경귀를 생각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가시로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 어떠한 이유로 이 가시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그것을 가지고 산다면 어떠한 것인가?

바울이 경험한 것을 찾아보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육체에 가시”는 무엇인가? 이 구절에 대하여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피조물의 육신의 장막에 거하면서 각 개인이 선과 덕행, 진리와 거룩함으로 가도록 항상 격려하는 순수한 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영이 왔던 곳에서 나오는 순수함의 근원으로부터 발산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육신의 장막에 있는 범법을 통하여 오는 악이 이 순수한 영과 갈등을 일으키며, 영을 이기려 하며, 그 모든 권능을 동원하여 이 영을 그 아래 두려고 합니다. ... 이것이 바울이 ‘육체에 가시’에 관해 말하면서 언급한 싸움으로, 그것은 영이 육체와 겨루며, 또 육체가 영과 겨루고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설교집, 18:258)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의 유형에 대해 생각한다.

이더서 12장 27절을 읽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본다. 자신의 괴로움이 떠나가기를 바울이 간구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읽는다. 주님께서 그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9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주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없애 주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시련과 괴로움이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어떤 영향을 사람의 영혼에 미치는가?
- 바울은 괴로움에 어느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27절을 읽는다. 바울의 괴로움에 밑줄을 긋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바울은 복음에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 여러분의 대답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 견디기 위해 바울에게 어떤 힘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 우리 생활에서 이와 같은 힘을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읽고 또 자신의 시련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찾아본다.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었다. **고린도후서 13장 5, 9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가?
-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성도의 특성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래야 하는 것처럼, 바울도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여야 했다.(모사이사서 3:19)”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될 것이라, 31쪽)

우리가 겸손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 박해, 또는 육신의 약함이라도 견디기에 충분할 만큼 강하게 될 것이다.